

# 광주시, 올해 우수정책 1위는 '복합쇼핑몰 본격 추진'

### 시민광장 광주온(ON) 설문, 올해의 베스트5 정책 선정 2위 가뭄 극복 물절약 홍보·3위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올해의 베스트 5' 우수정책을 28일 선정, 발표했다. 간부 공무원 설문을 거쳐 10개의 후보사업을 확정 후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광장 광주온(ON) 설문조사를 통해 5개의 우수정책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정책 1위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 추진'이 선정됐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 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 지원 등 3대 원칙과 5대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쇼핑몰 제안서 접수 시작을 공식화했다. 지난 11월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도시계획변경 논의를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와 원스톱 행정처리를 위한 신활력형 정책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신속·투명·공정하게 추진 중이다. 2위는 가뭄 극복 물절약 홍보, 3위는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성장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광주아이키움.kr), 4위는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시민의 품으로, 5위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실시계획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지역성장 계기 마련이 선정됐다. 김영근 시 평가데이터담당관은 "복합쇼핑몰, 물절약, 육아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 올해 베스트 5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며 "내년엔 시민이 행복한 광주실현을 위해 민



선8기 주요 사업의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매년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의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대

표 우수정책을 선정·포상해 광주의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 광주시 산하 50개 공공기관, 가뭄 극복 앞장 세면대 절수기·변기 내 벽돌 투입 등 최대 70% 절약

광주시 산하 50개 공공기관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물 절약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50곳이 물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수압저감 조치는 물론 절수기 설치, 변기 내 벽돌·페트병 투입, 상수 대신 지하수 사용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세면대 수전 절

수기기를 설치하고, 북구청은 청사 내 모든 양변기에 벽돌을 투입하고 세면대에는 모두 수전절수기를 설치했다. 서구청은 청사 세면대 전체를 자동센서 수전으로 교체했다. 변기 내 벽돌·페트병을 투입하면 1회당 물 1~1.5를 절약하고 세면대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물 70%를 아낄 수 있다. 각 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11월 수도 사용량 기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7년에서 1400

으로, 북구청은 720t에서 504t으로, 12월에는 각각 30%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러한 가뭄 상황에 유동 인구가 많은 기관부터 발벗고 나섰다"면서 "내년에도 절수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 시 수질개선과장은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물을 절약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가정 내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입장권 1억원 사전구매 완료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최근 시장실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1억 원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직위 이사장(노관규 순천시장), 사무총장,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본부장(백인노), 본부장영처장, 주담팀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주담팀을 중심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해 종력을 기울이는 한편 페플라스틱 재활용, 아동 놀이교실,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백인노 본부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 환경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은 "2023정원박람회는 웰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에 정원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장"이라며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을 뜻깊게 생각한다. 박람회 순환을 위한 통 큰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입장권은 인터파크(티켓), 아놀라 누리집과 전용앱 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사전예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조선대병원, 개원 51년 만에 1000병상 새 병원 짓는다

### 이사회서 결정...장례식장 부지 활용 6000억여원 들여 2028년 완공 목표

조선대학교병원이 개원 51년 만에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짓는다. 2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고 장례식장 부지 일대에 새 병원을 짓기로 결정했다. 1971년 지어진 조선대병원은 개원 51년 동안 2·3관 증축 이후 6차에 걸쳐 크고 작은 개·증축을 벌였다. 그러나 노후화와 잇단 증축으로 내부 동선이 복잡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이 커지면서 새 병원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사회는 대학 정문·공과대학 인근 부지, 현 장례식장 부지 등을 새 병원 부지로 적절하지 검토했다. 이사회는 기존 병원 건물인 본관, 별관(2·3



관)과의 연계성,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현 장례식장 부지를 새 병원 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병원은 장례식장과 일대 3만여㎡에 지상 12층·지하 4층(8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착공 예정인 감염병전문병원 내 100병상을 포함, 총 1000개 병상을 운영한다. 주차장도 현재 1000여 면에서 2000면 규모로 늘어날 전

망이다. 새 병원 건립 이후 본관동에는 연구시설을 갖춰 다양한 의료 연구 수행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선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 계획에 예산 600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착공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이슬비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From 1983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